



광주 서부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광주 서부소방은 지난 15일 관내 시장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긴급차량 출동 시 양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추진됐으며 차량 정체 구간을 실제 주행하며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구청·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소한 골목길로 통행 장애가 우려되는 양동시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정체 구간 등 주요 도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 △출동 중 일반차량에 대한 양보 운전 유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방송 등을 실시했다. 백경민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내가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평상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박광철 원장, 북부소방 지도의사 위촉

광주 북부소방은 지난 15일 박광철 광주현대병원 응급의학과 원장을 구급지도의사로 연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구급지도의사 위촉은 병원 전 단계의 119구급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구급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3년 1월 북부소방 구급지도의사로 최초 위촉됐던 박광철 구급지도의사는 이번 연임 위촉을 통해 오는 2027년 1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 전문응급처치에 관련 적정성 평가 및 교육·훈련,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및 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구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약품 등에 대한 교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맡는다.

황인 북부소방서장은 "구급지도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자문을 통해 구급대원의 역량 강화와 함께 병원 전 단계 119구급서비스의 전문성 및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대 일자리센터-상의 광주인력원 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원장 이무상)과 미래인재양성 및 교육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교류하며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취업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하며,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준우(회계세무학과 교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다양한 협업을 통해 더 많은 학생에게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교통공사,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광주교통공사는 16일 광주시 서구 상무역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치고,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동참했다. (사진)

이날 캠페인에서는 도시철도 이용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연초 행사·모임 계획대로 진행하기 △직장 인근 소상공인 식당 이용하기 △온라인 구매 대신 전통시장 및 동네 상점 방문하기 등 다양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홍보하며 활기찬 지역 상권 구원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동참을 기원했다. 이밖에도 공사는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공존과 상생의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 추진, 유관기관·지자체와 연계한 각종 협업 프로그램 진행 등 내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상생과 연대라는 '광주 정신'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 겨울방학 어린이 모의의회

광주 광산구의회가 '2025년 겨울방학 어린이 모의의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광산구의회 어린이 모의의회'는 관내 초·중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에 운영되고 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진행된 이번 어린이 모의의회에서 관내 초등학교 4개교 학생 총 35명이 참가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 견학·홍보 영상 시청을 통해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회의장에서 안건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표결, 2분 자유발언 등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직접 운영해 보기도 했다.

김상철 기자



광주수련로타리클럽, 필리핀 봉사 기금 전달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수련로타리클럽은 지난 14일 광주 국제로타리 3710지구회관에서 필리핀 해외봉사 지원금 및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사진)

광주수련로타리클럽은 지난해 11월 필리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사용할 기금 마련 바자회를 개최했고, 바자회를 통해 모은 기금을 이날 전액 기부했다. 필리핀 봉사활동은 오는 오는 2월 실시 예정이다. 박정연 광주수련로타리클럽 회장은 "회원들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수련로타리클럽은 매년 국내외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 전달을 통해 국제적 차원의 나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환 기자

최동환 기자



광주 광산구,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수상

1313 이웃살핌 등 시민 협치 성과

광주 광산구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의 우수성과 민관협치 성과로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거버넌스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사진)

'한국거버넌스대상'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 추진으로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지자체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광산구는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전국 최초로 추진한 '1313 이웃살핌', 이주배경 청소년 상생 교육이 높은 평가를 받아 거버넌스 분야 대상에 선정됐다.

광산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는 시민이 일자리에 관해 직접 묻고 답하며 지속가능 일자리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삶의 터전, 일터의 노동자가 주축이 되는 세계 최초의 상향식 사회적 대화로, 광산구는 올해 녹색 제작, 후속 단계인 백색 제작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을 이어간다.

1313 이웃살핌 사업은 민·관·산·학 협업을 기반으로 주민주도 안전망을 구축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막는 복지 혁신 모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개 동에서 사업을 진행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이 줄어드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가운데, 올해 광산구 21개 동 전제로 사업을 확대한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 성장을 돕는 상생 교육도 민·관·학 협력을 동력으로 한다. 광산구는 광주 외국인 주민의 56%가 지역에 거주하는 특성을 반영해 이주배경·한국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예술놀이 교실,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경청과 소통, 민·관·산·학을 아우른 폭넓은 협력과 협치에 기반한 민선 8기 정책의 우수성, 성과의 가치를 또 한번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시민이 새롭고 이로운 지속 가능한 혁신의 주체로 서도록 뒷받침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절친 유재석·송은이 케미... 3년만 '식스센스' 외전

절친인 코미디언 유재석·송은이가 '식스센스' 외전에서 만난다. (사진)

두 사람은 다음 달 13일 오후 8시40분 첫 방송하는 tvN '식스센스: 시티투어'에서 호흡한다. 2022년 시즌3 종방 후 3년 만의 외전이며, 유재석을 제외하고 새 멤버로 꾸린다. 유재석과 송은이는 '진실게임' 이후 20년 만에 고정예능에서 만나 기대를 모은다. 배우 고경표와 그룹 '오마이걸' 미미도 함께 한다.

식스센스는 진짜 속에 숨어 있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찾는 버라이어티다. 이번엔 출연진들이 매회 도시한 곳을 골라 여행한다. 시장 골목과



시내를 누비며 활약한다. 뉴스스

'흑백요리사' 윤남노 "어머니 위해 예능 다수 출연"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요리하는 돌아이로 활약했던 윤남노 셰프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유를 밝혔다. (사진)

15일 오후 방송된 MBC TV 예능물 '라디오 스타'에는 전 야구선수 출신 수, 배우 구혜선·곽시양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윤남노는 "라디오 스타" 출연 섭외를 받고 여기저기서 많이 자랑했다"며 "섭외 문의가 진짜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다. 이메일 정리가 안될 정도로 쌓여있다"고 말했다.

윤남노는 예능에 다수 출연하는 이유에 대해 "어머니가 제가 방송하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가 과거 암 판정을 받으셨다"며 "당시 중학교 1학년이였어서 어머니 케어를



못 해 드리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가 보는 프로그램에서 제목소리가 나오는데 '엄마 뭐해'라고 물어보면 부끄러워하시면서도 '네 방 들 어가라' 하신다"며 "제가 싫어하는 장면도 다 보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엄마가 더 많은 방송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방송 출연을 많이 하게 됐다"고 전했다.

뉴스스